

청색 분산염료시장 격전 예고

저가 중국·인디아산 및 고가 독일·영국산에 럭키 국산화로 반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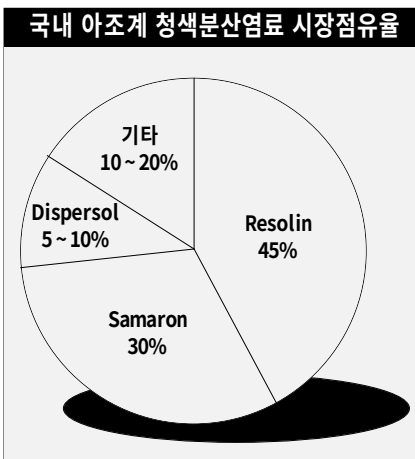
Neutral Blue계통의 색상인 청색 분산염료 시장이 크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국내 청색분산염료시장은 저가의 중국·인디아산 안트라퀴논(Anthraquinone)계 청색염료와 고가의 독일·일본·영국의 아조(Azo)계 청색염료가 지배해왔다.

특히 중국·인디아산 안트라퀴논계 청색 분산염료(C.I. Disperse Blue 56)는 저가·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국내(점유율 80%)는 물론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아조계 청색분산염료는 세계적으로 Zeneca(ICI)·Bayer·Hoechst 등 몇몇 기업들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서 물질 특허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대표 최근선)는 자체기술로 91년부터 3억원을 투입, 연구 끝에 최근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아조계 청색분산염료 개발에 성공, 향후 2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럭키가 개발한 아조계 청색분산염료인 루마크론 블루 S-FBL 200%는 기존의 안트라퀴논계 청색분산염료인 C.I. Disperse Blue 56에 비해 2배 이상의 농도를 지니고 있고, 승화견뢰도, 세탁견뢰도 등 각종 견뢰도가 우수하며, 염색시 면에 대한 이염성이 적고, 타사의 아조계 청색분산염료보다 흡착성이 좋아 염색 후 잔욕이 거의 남지 않는다. 또 혼방염색시 면에 오염이 없으며, Build-Up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염료 제조시 수은 등의 중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염색시 염료를 소량 사용하면서도 잔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극소화시키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아조계 청색분산염료는 Bayer의 Resolin Blue KFBL, ICI의 Dispersol Blue C-BR, Hoechst의 Samaron Blue FBLN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가격은 KG당 25~3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럭키는 온산공장에서 월 10톤씩 생산해 먼저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미국·일본·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특허출원을 해놓고 있다. 루마크론 블루 SFBL 200%의 시판 예정가격은 KG당 1만4000원으로 잡고 있다.

한편 청색분산염료의 개발추이를 보면 최초 아조계 염료가 개발됐으나 색상이 잘 나오지 않고 밝지 못한 단점이 있어 안트라퀴논계로 대체돼왔다.

그러나 안트라퀴논계 청색분산염료는 특히 혼방에서 색깔이 좋지 않아 물성이 우수하고 색상이 좋은 아조계 염료를 개발, 안트라퀴논계 염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1987년 세계 최초로 ICI가 아조계 Blue 165와 Blue 366을 이용, 밝은 색의 아조계 청색분산염료 Dispersol Blue C-BR을 개발했다. 이후 89년 Hoechst가 Samaron Blue FBLN, 90년에 Bayer이 Resolin Blue K-FBL, 91년 Sandoz가 Foron Blue SE-RN을 개발했다.

아조계 청색분산염료의 세계시장 규모는 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